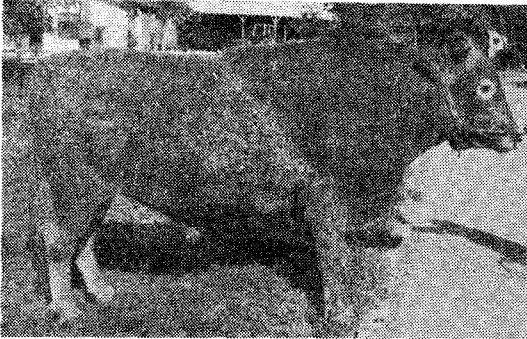


한우개량의 현황과 방향

축산과장 이 영 래

(농수산부 축산국)



1. 머리말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의 힘과 함께 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한우를 사육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1,800~2,000년 전부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같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오면서 한우는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적응되고 농사일하기에 알맞도록 길들여졌으며 늙어서는 식육자원으로서 우리의 식탁에 귀중한 쇠고기를 공급해 왔다. 따라서 원시적인 영농에서부터 수천년동안 농업 경영의 형태가 많이 발전되어 왔고, 과학 문명도 발달되었으나 한우와 농업은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우를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나 사육두수 면에서나 축산물 생산면에서 한우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 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농업의 과학화는 기계화 영농으로 연결되어 종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사육하던 한우는 점차 역용(役用) 가치가 낮아지고 이제는 농사 일보다는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육 목적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

더우기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은 축산물 소비량을 급격히 증대시키면서 쇠고기 부족 현상을 초래케 되어 국내 부족분에 한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다. 또한 가축두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막대한 양의 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므로 외화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국내 사료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 이용하고 가축을 개량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사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축산물의 자급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우는 그간 정부의 증식 정책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이 200만두를 넘어서 어느 정도의 증식 기반은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쇠고기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 두수가 더 증식 되어야만 한다. 쇠고기의 증산을 위해서는 물론 수적인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하루 속히 외국의 소와 같이 고기소로 개량하여야 할 것이다. 한우는 외국의 고기소에 비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우를 체계화하여 잘 개량하면 외국의 어느 고기소 품종 못지 않게 훌륭한 고기소로 개량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한다. 실제로 한우는 지난 60년대부터 인공수정사업 등 개량 정책을 꾸준히 강구하여 온 이후부터는 체위와 체중이 크게 늘어났고 육질도 개선되는 등 개량 효과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한우의 증식으로 쇠고기를 증산하고 농가의 축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사료자급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성있는 고기소로 개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간의 한우개량 추진시책을 살펴 보고 앞으로의 개량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소를 사육하는 여러 양축농가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한우개량의 추진시책

가. 과거의 시책

한우에 대한 개량 시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이미 1900년대에 일본인들에 의해 추진되어 일본의 화우(和牛) 개량사에 버금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화우는 이미 완전히 개량되어 육우 품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 한우는 그간 체계적인 개량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량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인들은 한우가 화우에 의하여 체격도 월등히 크고, 육질도 양호하며 기르기도 매우 수월하여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소를 수입해 갔고 이들을 기초로 하여 일본 화우가 개량되었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실제 일본의 갈색화우는 한우와 색깔이나 외모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인들은 한우에 대하여 잘만 개량하면 농경을 위한 역용과 육용을 겸한 역육(役肉) 품종으로 개량할 소지가 많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개량 시책을 착수하였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8.15 이전과 이후의 시책으로 구분하여 그간의 추진 시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8.15 이전 시책

○ 축우 개량증식에 관한 시책(총독부령 제9호)

1912년에 시행된 “축우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이란 시책이 있었는데 이는 한우가 농업 중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수출 품목으로서의 위치를 감안할 때 개량 증식에 힘써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의 자질이 특히 좋았던 함경북도산의 종모우를 선발 이용케 하고 이 종모우를 사육하는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주어 보호하였으며, 불량축

에 대하여는 거세(去勢)를 장려하여 우량축에 의한 개량 효과를 기대하였다.

○ 우적부(牛籍簿) 작성

1913년에는 전국적으로 축우사육적지를 조사하여 증식을 장려하였고 우적부를 만들어 소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상당히 진보된 시책을 강구하였다.

○ 한우 순수개량 시책

이는 1912년도에 시행된 총독부 훈령 제9호로 재강조한 시책의 일종인데 한우를 외국의 품종과 무절제하게 교잡시킴으로써 체격이 점차 약화되는 한편 역용에도 부적합하고, 농가 경제상에도 불리하게 되며 교잡에 의한 혈통의 혼란은 앞으로의 한우 개량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외국 품종을 도입하는 자에게는 엄격히 감시하여 교잡을 방지하고 순수 한우의 번식을 적극 장려한 시책으로 오늘날의 한우 순수개량 방침의 효시가 되고 있다.

○ 보호우 규칙

1916년에 총독부령 제55호로 보호우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매년 우리나라의 좋은 소가 일본과 만주 지방으로 수출됨에 따라 한우가 퇴화된다고 지적하고 지방장관은 의무적으로 큰암소 80두에 우량 종모우 1두를 확보 설정하여야 하며 종모우로 설정된 소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를 못하게 하고 이유없이 종부 거절을 못하며 반드시 지정된 종모우로만 교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배시에는 벌칙 규정까지 두어 강력한 개량시책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종모우 검사규칙 제정

각 도별로 종모우 검사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 합격된 종모우는 1년간 자격이 있고 불합격된 종모우가 종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료(科料)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두었고 그외에 순수 재래종의 혈통보존, 축산조합 및 동연합회의 설치 운영, 우계(牛契)의 장려 등 시책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축산협동조합과 축산계의 조직과 같은 시책으로서 이로 인해 한우 개량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 한우 심사표준의 제정

1930~1940년대에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

평양전쟁의 개전 등 세계적인 격변기로서 우량한우가 전쟁물자(쇠고기 및 통조림 원료) 공급 수단으로서 상당한 수난을 당하였으며 오늘날 한우가 크게 개량되지 못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1938년에는 최초로 한우 심사표준이 제정되고 한우 증식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한우 심사표준은 근대에까지 사용되어 한우 개량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2) 8. 15 이후의 시책

○ 가축보호법의 제정

8. 15이후 6. 25를 겪는 동안에 한우는 일제시대 이후 두번째로 크나큰 수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우는 60만두에서 20만두가 감소된 40만두로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 증식 대책으로 1954년 1월 법률 제306호로 "가축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축산법의 모체(母體)가 된 매우 중요한 법으로, 이에는 우적(牛籍)의 등록과 중우의 검사, 한우의 도살 제한 및 금지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한우의 개량보다도 도살 제한을 특히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축산법의 제정

위에서 설명한 가축보호법이 모체가 되어 1963년에 축산법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종축 및 후보종축의 심사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종축선발 기준을 채점제에 의한 외모심사 기준이 마련되었고, 가축 인공수정, 도살 제한, 종축 보호지구의 설정 등 종축의 보호와 가축 개량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인 한우개량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한우 개량 연구에 대한 시책

6. 25동란이 끝난 후부터 축산이 점차 안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의 대종인 한우에 대한 경제적 개량 문제가 논의되고 각계의 관심이 높아져 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60년 4월 당시 농림부 주최로 학계, 업계 등 축산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한우개량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한우개량의 목표, 개량 방법, 심사표준 및 체위 측정 방법, 사양표준 등이 토의되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한우개량 목표를 지금까지의 역용위주에서 육용면을 감안한 역육 겸용으로 하는

것과 개량 방법은 잡종 개량을 엄금하고 순종개량 방법을 택하며 심사표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협의회는 1967년까지 6차에 걸쳐 개량연구 시책을 협의하였는데 개량방법을 순수 계통에 의한 우량계통선발 방법에 의하며 이를 위하여 1년에 2회씩 전국적인 한우 실태 조사와 한우 품평회를 개최하고 우수 개체를 선발하여 능력을 검정하며 계통번식을 실시하여, 이들의 혈통을 등록하고 인공수정사업을 강화하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 개량시책 내용이 주로 협의되었다.

나. 현행 시책

1) 한우 등록

한우 등록은 개량을 위한 기본사업으로서 우량축의 선발과 불량축의 도태라는 개량에 관한 기본 이론에 입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우 등록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로서 매년 1,000두 내외로서 극히 미미하였으나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라고 보겠다. 한우 등록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참여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양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등록된 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사료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우 등록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 방법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중 우량축을 선발하기 위하여 등록 요원이 심사를 하여 70점 이상을 얻은 한우로서 실적 사유가 없는 것을 골라 기초등록을 하고 이 기초등록우가 인공 수정(등록된 수소)에 의거 송아지를 생산하면 모색이나 체형의 이상 유무 등 외관상 실적 조건 유무를 조사하여 합격된 것은 자우등록을 하게 되고 30~42개월 후에는 또다시 외모 심사를 하여 75점이상이 되면 보통등록을 하게 되며 보통등록우간에 생산된 소를 다시 심사하여 85점 이상 되는 우량축을 선발하여 고등등록을 하게 된다.

한우 등록을 위해서는 개체별로 일일이 심사하여 대상우를 선발하는 등 막대한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암소 사육두수가 많은 전국의 9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그간의 한우 등록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우 등록실적 및 계획

(단위: 천두)

기초등록	70~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계
기초등록	13	16	20	20	85	10.5						99.5
자유등록	1	-	5	15	20	35	42.3	44.1	38.5	33.0	27.0	265.9
보통등록						4.5	7.5	10.0	15.0	25.0	30.0	92
고등등록							0.2	0.9	1.5	2.0	3.0	7.6
계	14	16	25	35	45	50	50	55	55	60	60	465

※ 87년까지는 기초등록의 기반을 조성하고 87년이후는 상위등록으로 유도.

2) 한우 순수계통번식

순수 한우를 보호 증식시키고 한우 개량의 시범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 8개 도에 면단위로 1개소씩을 선정하여 우량축을 선발 등록하고 지역별로 알맞는 종모우를 선정하여 선정된 종모우의 정액으로 체계적인 수정을 실시하는 한편, 기술지도원을 1명씩 현지에 배치하여 기술지도 실시와 계량도를 조사토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79년도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 당시에는 성빈우가 8개 지구에 3,967두였으나 83년 말에는 5,293두로 32%가 늘어났고 5개년간 15,898두에 대한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9,175두의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였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보통등록, 고등등록 두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한우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 자질이 우수한 결과물을 보이고 있고 시장 시세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 성과를 계속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한우 능력검정

한우 개량의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유전적으로 우량한 육용 형질을 가진 종모우를 선발하고 이의 자질을 조기에 확산시키는 것이므로 종모우의 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축협 서산종축목장을 한우 개량 기지화하였으며 1,200두의 종빈우를 확보하여 연간 40두의 후보종모우를 확보하고 1두당 30두씩 교배시켜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여 종모우의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연간 51~20두의 보증 종모우를 선발토록 하는 기반 시설

이 금년까지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검정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4) 전국 축산진흥대회

196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축산진흥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량한 종모우를 심사 선발하고 이를 매입하여 인공수정종모우로 활용함으로써 축산진흥 의욕 고취와 가축개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5) 인공수정

인공수정 사업은 우량 종모우의 자질을 조기에 확산시키는 수단으로써 1962년 사업개시 이후 기술 면이나 수용태세 등이 완전히 정착 단계에 와 있다. 전국의 인공수정소는 84.6월 현재 축협 계통이 462개소, 민간이 892개소, 합계 1,354개소에 1,618명의 수정사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1971년부터 실용화된 냉동정액(-196℃로 정액 처리)체제로의 전환으로 정액의 영구보존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태율의 획기적인 향상과 더불어 그 보급률이 크게 높아졌다.

인공수정용 정액에 대하여는 축산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공급기관에서만 공급토록 법제화하여 현재 한우 정액은 축협 서산종축목장에서만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우량 정액의 생산 공급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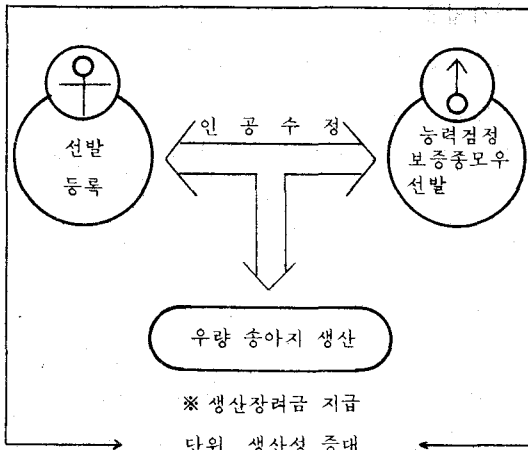
3. 한우개량의 효과

소는 외모와 능력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오늘날 한우의 체형변화는 한우개량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옛날의 한우는 현재의 것보다도 체형이 대형종이었고 비육성도 좋았으며 육질 또한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1918년 일본인 학자(井口)에 의하면 약 100여년 전에 사용하던 소길마가 너무 커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어느 농부의 조상이 사용하던 길마는 너무 커서 현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의 소가 얼마나 대형이었나 하는 것을 실감케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한우가 옛날 소보다 작아진 것은 소의 우역(牛疫)이 빈발하던 시기에 우량

한우의 개량체계



한우가 많이 죽었고,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쟁물자 공급을 위하여 남도살(濫屠殺) 및 우량우의 수출에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체위나 체중이 상당히 향상되었는데 이는 사양관리 기술의 향상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간 정부의 개량시책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되며 이는 한우 순종개량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우에 대한 체형 조사는 일본인 또는 국내 학자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은 1974년부터 한우 개량 추세 조사를 3년마다 전국 가축시장에 출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69년부터 실시해온 "가축품평회"의 출품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우의 체형과 체중 변동 현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가. 체위의 향상

구분	1929 (A)	'74 (B)	'83 (C)	증가율	
				C/A	C/B
체위	121.0 cm	126.0	129.3	6.9	2.6
흉위	165.6 cm	175.3	186.7	12.7%	6.5

* 1929년 수치는 일본인 학자 葛野가 중부지방의 한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1974, 1983년 수치는 매 3년마다 실시하는 한우 개량 추세조사 결과임.

한우 체위 중 체고와 흉위에 대하여 1929년의 일본인 학자 조사 수치와 한우 개량 추세 조사를 비교하여 볼 때 체고에 있어서는 약 50년간

에 6.9%인 8.3cm가 커졌고 10년 간에는 2.6%에 해당되는 3.3cm가 커졌다. 또한 흉위는 약 50년 간에 12.7%인 21.1cm가, 10년 간에는 6.5%인 11.4cm가 커져서 한우의 체위는 점차 개량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나. 체중의 증가

	1974	'77	'80	'83	증가율(83/74)
6개월중수소	133. kg	138.0	147.1	157.4	18.3%
18 "	289.6	305.7	331.4	361.5	24.8
성우 3세	404.5	413.9	439.8	463.6	14.6

한우 개량 추세조사 중 연령별로 조사한 체중을 보면 10년 전보다 6개월령이 18.3%인 24.3kg이 늘고 18개월령은 무려 24.8%인 71.9kg이, 큰소는 14.6%인 59.1kg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사양관리 기술이 개선된 영향도 있겠지만 1960년부터 실시해온 인공수정 확대에 따른 개량 효과라고 추정되며 한우 개량의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앞으로의 방향

한우를 개량한다는 것은 유전적인 형질을 개량하여 후대에게 현재의 어미보다도 능력이 더욱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소를 만드는 것이다. 한우와 품종이 다른 것소나 육우를 교배하면 당대의 자손에게는 어미보다 체격도 크고 체중도 무거운 우수한 개체가 생산되지만 2대나 3대로 내려갈수록 그 형질이 고정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어미소보다도 능력이 더욱 떨어지게 되고 불량 인자가 발생되어 그 후대는 완전히 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이나 국내 학자들도 함부로 무계획적인 교잡을 절대 엄금토록 강력한 시책을 강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웃 일본의 화우에 과거교잡을 장려한 일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갖가지 열성인자가 출현되어 화우 개량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이와 같이 혼혈된 화우의 혈액을 고정시켜 새로운 육우로 개량하기 위

하여 우수 계통끼리 분류하여 등록을 실시하고 불량 형질을 가진 소를 도태하는 등 80여년에 걸친 꾸준한 개량 시책을 강구한 결과 이제는 완전한 육우로 개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우의 개량 방향은 한우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 부분에 우수한 종모우를 선발하여 점차 개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우의 주요 개량대상 형질은

첫째, 만숙성으로서 수소의 경우 18개월 정도 비육하여 출하하는 도축 체중이 보통 농가에서 현행 420kg 수준인데 이것을 500kg 이상이 되도록 해야겠으며

둘째, 정육률(精肉率)도 40% 수준에서 43% 이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번식률도 현재 75% 수준으로 낮은 실정으므로 80% 이상으로 높여 나가야 하겠다.

이밖에도 사료효율 개선, 비육량 증대 등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의 개량은 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가. 심사와 등록제도의 정착

한우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 한우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선발된 것은 등록을 시켜 한우 순수계통 번식 집단을 마련하여 이를 보호하는 한편 불량축은 과감히 비육 출하시켜 번식에 이용치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한우의 심사와 등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요원의 양상과 양축농가의 등록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양축가들 스스로 적극 이 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한우 등록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전국 90개 지구를 등록사업지구로 선정하여 '82년부터 연간 20~40천두씩 등록을 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의욕 고취와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등록된 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사료를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양축농가에게 의타심을 조장하며 또한 사료 자급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매년 늘어나는 물량을 전부 지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등록된 한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양축농가로서의 보람과 긍지로 생각하고 기초등록에서부터 고등등록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단계를 높여 등록해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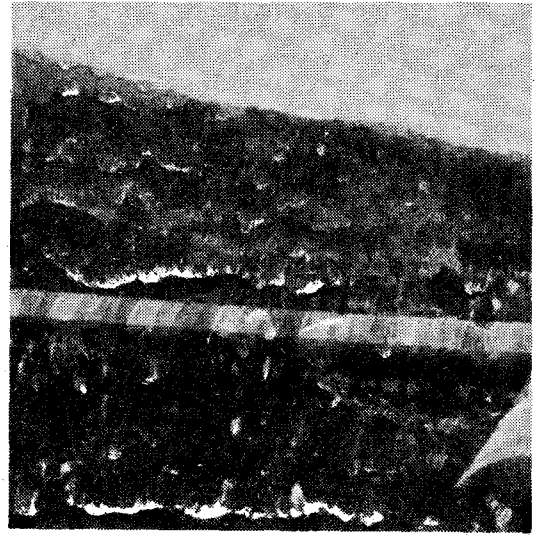
이와 같이 등록된 한우는 등록요인으로부터 암소의 불량 요인 즉 개량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알맞는 종모우의 정액을 인공수정시켜 송아지를 생산토록 하고 이 송아지는 부모의 혈통을 보유하고 되므로 송아지가 자라서 번식할 때에는 또 다른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우를 선정하여 교배시켜 나가는 등 교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점차 빈약한 부위가 보완되고 개량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우 등록사업이 개량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한우 등록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나. 능력검정과 우량 종모우의 선발 강화.

예로부터 가축이나 식물 등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이 씨가 좋아야 한다. 한우도 종모우 형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량의 효과가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나 과거 시책의 핵심이 종모우의 선발과 보호 시책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우기 현재에는 인공수정 보급률이 크게 높아 종모우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우의 심사는 보통 외모·혈통·능력의 3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외모는 외모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혈통은 혈통등록부에 의거 알 수 있지만 능력은 후대검정 방법에 의하여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량 종모우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난 69년부터 전국 단위의 가축품평회(78년부터 축산진흥대회로 명칭 변경)를 개최하여 여기서 선발된 종축은 정부에서 매입하여 종모우로 활용하고 있다. 금년에도 제10회 전국축산진흥대회가 수원 가축시장에서 개최되었는데



릿수가 거듭될수록 우수한 종모우가 선발되고 이들 종모우의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질이 개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는 후대 능력검정(자손의 능력을 보아 어미소의 능력을 판정하는 방법)을 실시하고 유전력이 확실한 것을 선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82년에 서산종축목장을 축협에서 인수하여 한우의 능력검정사업 체계를 갖추고 85년부터는 검정이 시작되어 매년 15~20두의 보증종모우를 생산함으로써 '90년대에 가서는 완전히 보증종모우로 대체되어 한우 개량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 번식관리 기술 개선

가축의 소득을 올리려면 무엇보다도 가축의 번식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우량한 가축을 생산토록 해야 하는데 한우는 농가에서 관행적인 사양 및 번식 관리로 수태율이 낮고 또한 적기에 번식을 못할 뿐 아니라 벼짚 위주의 관행적인 사양으로 한우 개량에 암적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한우는 우사에 매어 기르게 되고 또한 배합사료 등 농후사료의 과다 급여로 인해 불임이 되는 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한우의 개량을 위해서는

번식과 사양관리 기술을 잘 습득하여 적령기에 번식을 시키고 벼짚보다는 우량 건초나 사일리지 등 우량 조사료를 이용하여 소의 번식기능을 되찾아 정상적인 번식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한우 개량이란 양축가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나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이나 선진 외국에서도 소를 개량하는 데는 수십년의 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공하였듯이 우리도 정부와 양축농가가 다같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우의 개량은 수십년을 노력해야 조그만한 개량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 개량효과를 전체 한우 두수와 연계한다면 큰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우 중에서 우수한 집단을 만들어 등록을 하고 후대검정에 의해 능력이 보증된 우량 종모우를 엄격히 선발하여 이를 활용한 인공수정을 실시함으로써 한우도 고기소로 개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우 개량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